

혼자 하는 자산관리

돈이 필요한 시점에, 돈이 없지 않게

김우현 · 정은선 지음

1부 지금 내 돈부터 적어 봅니다
가진 돈, 갚을 돈, 매달 남는 돈

2부 매달 돈이 흘러가는 길
남는 돈에 이름을 붙이는 다섯 단계

3부 목표, 실행, 점검
언제 얼마가 필요한지

4부 계좌와 세금
연금저축 · IRP · ISA, 그리고 꺼낼 때의 세금

5부 노후와 제도 변화
국민연금 · 퇴직연금 · 건강보험료

2026년 세법 기준

12개월 안에 제도가 바뀌면
고친 판을 보내 드립니다

웹 계산기 12개월

내 숫자를 넣고
직접 계산합니다

한 사람의 숫자로

예시가 중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차례

들어 가며

프롤로그	상품을 고르기 전에 순서부터 정합니다 순서가 틀리면 좋은 상품을 골라도 돈이 필요할 때 돈이 없습니다	3
	이름 없는 돈은 사라집니다 목적 없이 모은 적금은 만기 날 '쓸 돈'이 됩니다	4
	내가 정할 수 있는 건 하나뿐입니다 월 200만 원·5년·연 10%와 월 100만 원·10년·연 5%는 거의 같습니다	5
	오래 넣으면 달라지는 것 30년이 지나면 이자가 넣은 돈보다 많아집니다	6
	세금도 수익입니다 같은 100만 원을 벌어도 손에 남는 돈은 83만 5,000원에서 100만 원까지 갑니다	7
	이 책은 아끼라고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내 벌이와 성향에 맞는 비율입니다	8
시작	이 책의 범위 · 웹앱 시작하기 · 예시 인물 끝까지 함께 갈 한 사람 — 36세, 월 실수령 340만 원	9-11

본 문

1부	지금 내 돈부터 적어 봅니다 현금흐름 · 겹치는 지출 · 1년에 한두 번 나가는 돈 · 자산과 부채 · 대출 · 비상금	12-18
2부	매달 돈이 흘러가는 길 돈에 이름 붙이기 · 통장 나누기 · 줄이는 순서 · 다짐 대신 구조 · 남으면 쓰기	19-23
3부	목표, 실행, 점검 목표 적기 · 조건 조정 · 실행 · 매달 세 숫자 · 24개월 예시	24-28
4부	계좌와 세금 연금저축·IRP 순서 · ISA · '비과세'의 함정 · 자산 배치 · 연 1,500만 원 선 · 연금수령한도	29-44
5부	노후와 제도 변화 연금 세 층 · 은퇴 후 건강보험료 · 나이대별 순서 · 2026년에 바뀐 것	45-53

참 고 · 마 치 며 · 부 록

참고	제도가 바뀔 때 볼 것 · 실행 전 체크리스트 8가지	54-55
마치며	구조는 한 번, 숫자는 계속	56
부록 1	세금을 읽는 법 — 걷는 방식 세 가지 · 원천징수 · 종합소득세	57
부록 2	한눈에 보는 세율 — 이자·배당 · 주식 · 종합소득 · 계좌별 세금 · 상속과 증여	58-64
부록 3	따라 하기 — 웹앱 입력칸과 책의 숫자 맞춰 보기	65-67
부록 4~8	계좌 여는 법 · 용어 사전 · 돈 나누는 기준 · 위험 대비 · 목표별 비용	68-72

읽는 순서

들어가며와 1~3부를 먼저 읽으며 웹앱에 내 숫자를 넣어 보세요. 4·5부는 계좌를 고를 때 펼쳐 보고, 처음 보는 말은 69쪽에서 찾으세요.

한 사람의 숫자로 끝까지 갑니다

이 책은 예시 한 사람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갑니다. 부가 넘어갈 때마다 이 사람의 숫자가 한 칸씩 채워집니다.

항목	가정한 금액
연봉(총급여) / 월 실수령	연 4,800만 원 / 월 340만 원
한 달 지출	고정지출 110만 + 줄일 수 있는 생활비 80만 = 월 190만 원
대출 상환 / 기존 연금저축(노후용 계좌)	월 45만 원 / 월 20만 원
가용금액	월 85만 원
바로 쓸 수 있는 현금	320만 원
전세보증금 / 연금 평가액	1억 2,000만 원 / 480만 원
신용대출 잔액 / 금리	1,800만 원 / 연 5.8%

실제 상담 사례가 아니라 설명을 위해 만든 조건입니다. 비교하는 동안 자산 가격·소득·지출은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대출 월 45만 원은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입니다. 1년에 한두 번 나가는 돈은 따로 마련해 둔 상태라고 가정했습니다. 본인 계산에서는 14쪽을 보고 따로 확인하세요.

기준일은 2026년 9월입니다. 2년 뒤 전세 보증금을 1,500만 원 올려 줘야 한다고 가정합니다. 연금저축에는 9월까지 180만 원을 넣었고, 연말까지 이어 가면 240만 원이 됩니다.

이 숫자가 다시 나오는 곳

1부	월 85만 원이 어떻게 나오는지, 비상금이 얼마나 모자란지
2부	그 85만 원을 어떤 통장으로 나누는지
3부	24개월 동안 비상금과 전세 준비금을 어떻게 나눠 모으는지
4부	연금저축·IRP(노후용 세금 혜택 계좌)에 한도 900만 원을 다 채우는 게 이 사람에게 맞는지

마지막 질문

51쪽에서 “올해 연금계좌에 얼마를 넣을까?”라는 질문에 금액 하나로 답합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그 답은 한도인 900만 원이 아닙니다.

언제 얼마가 필요한지 적습니다

‘돈 모으기’는 목표가 아닙니다. 목표에는 금액과 날짜가 있어야 합니다.

“돈 모으기” 대신 “2년 뒤 전세금 올려 줄 돈 준비”처럼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금액이 아직 확실하지 않다면 가정한 금액이라고 표시하고, 언제 다시 확인할지 정해 둡니다.

목표에 필요한 것	스스로 물어볼 것
목적	무엇에 쓸 돈인가요?
필요한 금액	전체 금액인가요, 더 모아야 하는 금액인가요?
쓸 날짜	실제로 몇 월에 꺼내야 하나요?
지금 준비된 돈	가진 돈 중 이 목표에 쓸 수 있는 건 얼마인가요?

매달 더 모을 돈 = (목표 금액 - 지금 쓸 수 있는 돈) ÷ 남은 개월 수

수익은 빼고 계산합니다. 쓸 날이 정해진 돈은 원금으로 계획해야 안전합니다. 웹앱 시뮬레이션의 수익률 칸은 본인이 넣어 보는 비교용 가정입니다.

이미 이 목표에 매달 넣고 있는 돈이 있다면 그만큼 빼고 계산합니다. 실행 단계에서 그 돈을 ‘추가 납입’으로 또 넣지 마세요.

쓸 일이 아직 정해져 있지 않다면 · 전세도 결혼도 당장 없다면 ‘목돈 만들기’로 적습니다. 금액과 날짜 중 하나만 정하면 나머지는 위 식으로 나옵니다. 가용금액 85만 원이면 4년 안에 만들 수 있는 목돈은 4,080만 원(85만 × 48개월)이고, 1억 원을 모으려면 9년 10개월이 걸립니다. 목표를 낮추는 게 아니라, 1억 옆에 10년이라고 적는 겁니다.

같은 돈을 두 번 쓰지 않기 — 1부에서 본 함정

비상금 목표가 705만 원이고 지금 320만 원이 있다면, 새 목표에는 모자란 385만 원만 적습니다. 이미 가진 320만 원을 이 목표의 준비금으로 또 연결하지 않습니다.

웹앱

‘03 목표별 계획’ 화면에 목적·금액·날짜를 적으면 목표마다 얼마가 모자라는지 나옵니다. 엑셀에 먼저 모아 왔다면 양식의 ‘3 목표’ 시트를 올려도 됩니다. 금액이 막막하면 부록 8(72쪽)의 공식 조사 금액부터 넣어 보세요.

잘 알려지지 않은 함정, 연 1,500만 원

세금이 붙는 사적연금 소득이 1년에 1,500만 원을 넘으면 낮은 세율을 더는 적용받지 못합니다.

1,500만 원에 들어가는 것

-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 원금
- 운용수익 전부 (퇴직금을 굴러 생긴 수익도 포함)

들어가지 않는 것

-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 원금
- 퇴직금을 옮겨 온 원금(이연퇴직소득)
-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같은 '연금'이라도 이 선에 합산되는 돈과 아닌 돈이 나뉩니다. 이걸 모르고 연금을 전부 더해 보고 겁먹는 경우가 많은데, 합산되는 건 왼쪽 두 가지뿐입니다.

선을 넘으면 남은 부분만 따로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연금소득 전체를 16.5%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하나로 다시 계산합니다. 3.3~5.5%로 낼 줄 알았던 세금이 16.5%(분리과세를 고를 때)가 되는 겁니다. 16.5%로 공제받았다면 넣을 때 돌려받은 공제율과 같은 숫자입니다.

나는 이 선에 닿을 사람일까

매달 넣는 금액과 기간으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노후에 한 해 받게 되는 금액입니다.

매달 넣는 돈	20년 넣으면	25년 넣으면	30년 넣으면
30만 원	554만 원	832만 원	1,205만 원
50만 원	924만 원	1,386만 원	2,009만 원
75만 원 (한도 900만 원)	1,386만 원	2,079만 원	3,014만 원

연 6%로 굴리고 노후에 4%씩 꺼낸다고 본 숫자입니다. 붉은 굵은 숫자가 1,500만 원 선을 넘는 경우입니다. 연 6%는 설명을 위한 가정이고, 특정 수익률을 약속하거나 예상하지 않습니다.

55세부터 받는다면, 40대에 시작해서는 거의 닿지 않습니다. 반대로 30대 초반에 한도를 꽉 채워 30년을 가면 넘습니다. 선에 닿는 최소 금액은 20년이면 월 81만 원, 25년이면 54만 원, 30년이면 37만 원입니다. 20년의 81만 원은 공제 한도(월 75만 원)보다 커서, 공제받은 돈만으로는 20년 안에 닿지 않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없을까요

연금을 다루는 자료는 대부분 '무엇을 담을까'까지만 이야기합니다. 그쪽은 상품과 비중 이야기라 할 말이 많습니다. '꺼낼 때 얼마가 남나'는 수십 년 뒤의 이야기라 자꾸 뒤로 밀립니다.

그런데 이 선은 쌓는 단계에서만 조절할 수 있습니다. 55세가 되어서는 손쓸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정작 조절할 수 있을 때 이 정보를 모른다는 게 문제입니다.

생각보다 가까운 선

연 1,500만 원은 한 달에 125만 원입니다. 노후에 남은 돈의 4%씩 꺼내 쓴다고 보면, 공제받은 원금과 그 운용수익이 3억 7,500만 원쯤 됐을 때 이 선에 닿습니다.

거꾸로 계산해 보면	닿는 금액
연 1,500만 원 ÷ 매년 4%씩 꺼냄	3억 7,500만 원
연 1,500만 원 ÷ 매년 5%씩 꺼냄	3억 원

노후 자금은 해마다 남은 돈의 4% 정도씩 꺼내 쓰면 오래 버틴다는 계산이 널리 쓰입니다. 감을 잡기 위해 빌려 쓴 숫자일 뿐, 정해진 규칙은 아닙니다.

30대부터 꾸준히 채우면 닿는 금액입니다. “한도를 다 채우라”는 조언을 그대로 따르면 30년 뒤 이 선에 닿을 수 있습니다.

6쪽의 숫자를 그대로 가져와 보면

6쪽에서 월 50만 원을 연 6%로 30년 넣으면 5억 226만 원이 됐습니다. 월 50만 원은 1년에 600만 원, 연금저축 공제 한도와 딱 같은 금액입니다. 여기서 4%씩 꺼내면 1년에 2,009만 원이고, 1,500만 원 선을 509만 원 넘습니다.

세율이 5.5%라면 1년에 110만 원이지만, 16.5%가 되면 331만 원입니다. 해마다 221만 원 차이가 나고, 20년을 받으면 **4,420만 원**입니다. 연금저축 한도만 채워 30년을 가도 이렇게 됩니다. 이 숫자가 낮선 건 계산이 틀려서가 아니라, 꺼내는 단계를 아무도 계산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관리할까 — 두 가지 방법

1 받는 기간을 늘립니다

한 해에 받는 금액을 1,500만 원 아래로 두면 낮은 세율이 유지됩니다. 다만 총액이 크면 기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2 공제받지 않은 원금을 함께 쌓아 둡니다

연금계좌에는 1년에 1,8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지만 공제는 900만 원까지만 됩니다. 그 차이만큼 넣은 돈은 공제를 안 받았으니 꺼낼 때 세금이 없고, 1,500만 원 계산에도 안 들어갑니다. 게다가 꺼낼 때 공제받지 않은 원금부터 먼저 빠져나가게 되어 있어서, 초반 몇 해의 과세 대상 금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16.5%가 두 번 나오는데, 같은 세금이 아닙니다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뺄 때의 16.5%는 기타소득세입니다. 55세 전에 찾거나 수령 한도를 넘겨 받을 때 붙는 일종의 벌칙입니다. **연 1,500만 원을 넘었을 때의 16.5%**는 연금소득 분리과세로, 종합과세와 비교해서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그해 다른 소득이 얼마인지**로 갑니다. 연금 말고 소득이 거의 없으면 종합과세 쪽 세율이 16.5%보다 낮아질 수 있고, 임대·사업소득이 계속 들어오면 분리과세가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받기 시작하는 해에 그해 소득을 놓고 비교해 보세요.

한눈에 보는 서울

계산할 일이 생길 때마다 펼쳐 보세요. 모두 2026년 9월 기준이고,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서울에는 '포함'이라고 적었습니다.

벌었을 때 — 이자와 배당

구분	세율	참고
이자소득	15.4%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떼고 줍니다(원천징수)
배당소득	15.4%	이자소득과 같습니다
이자 + 배당이 연 2,000만 원 초과	종합과세	넘는 부분을 다른 소득과 합쳐 60쪽 종합소득세율로 계산합니다. 원천징수 세율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으면 그 금액으로 냅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91의19	14 / 20 / 25 / 30%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25% 이상이면서 배당을 전년보다 10% 이상 늘린 상장법인의 현금배당(2024년보다 배당이 줄지 않은 경우). 리츠·ETF·펀드는 제외. 2026~2029년에 받는 배당(2027~2030년 5월 신고분)까지 한시 적용 · 지방소득세 별도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분리과세 신청서를 내야 적용

팔았을 때 — 주식

구분	세율	참고
국내 상장주식 · 소액주주	없음	양도소득세가 없고 증권거래세만 냅니다
국내 상장주식 · 대주주	22% 3억 초과분 27.5%	대주주 기준 · 코스피 지분 1% 또는 50억 원 / 코스닥 2% 또는 50억 원 / 코넥스 4% 또는 50억 원 (포함) · 비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아니어도 팔면 양도세 대상이고, 대주주 금액 기준은 목적별로 달라 팔기 전 세무사 확인
해외주식 양도	22%	양도세 20% + 지방소득세 2% · 1년에 250만 원 기본공제 · 같은 해 이익과 손실을 합쳐 계산 · 다음 해 5월에 신고
해외주식 배당	15.4%	현지에서 떼 세금이 있으면 그만큼 조정합니다
증권거래세 2026년 매도분부터	코스피 0.20% 코스닥 0.20% 비상장 0.35%	코스피는 증권거래세 0.05% + 농어촌특별세 0.15%. 2025년 0.15%에서 올랐습니다. 손실이 나도 팔 때마다 냅니다

근거 · 소득세법 §14③6, §94, §104 · 조세특례제한법 §91의19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5 · 농어촌특별세법 §5

여기까지가 미리보기입니다

전체는 본책 73쪽, 별책 10쪽입니다. 지금 보신 7쪽은 책의 구조를 확인하시라고 앞·중간·뒤에서 골라 넣었습니다.

구성

구성	금액
회원 웹앱 12개월 이용권 내 숫자를 넣고 계산합니다. 세법이 바뀌면 고치는 대로 반영합니다	24,000원
본책 PDF 73쪽 순서와 원리. 한 사람의 숫자로 끝까지 갑니다	20,000원
별책 PDF 10쪽 경제뉴스를 네 칸으로 나눠 내 계획을 바꿀 일인지 판단하는 법	5,000원
합계	49,000원

이용기간(결제일부터 12개월) 안에 세법이 바뀌면 고친 판을 보내 드립니다.

이 책이 다루지 않는 것

- 특정 종목·상품·금융회사 추천
- 보험 상품의 보장 분석
- 상속·증여 설계
- 개인별 정밀 은퇴설계

자산군 수준의 제도 설명과 계산 방법에 한정했습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선까지입니다.

결제 전에 확인해 주세요

본책·별책은 한 PDF로 드립니다. PDF는 내려받기 전까지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내려받은 뒤에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한됩니다.

회원 웹앱 이용권은 발급 전이면 24,000원 전액, 발급 후 7일 안이면 이용한 날수만큼만 빼고, 그 뒤에는 이용한 날수만큼과 위약금 10%(2,400원)를 빼고 환불해 드립니다. 내용이 표시·광고와 다를 때는 받으신 날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아신 날부터 30일 안에 구매를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gtpro0114@gmail.com · 구매·환불·오류 신고 모두 같은 곳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